

교환학생 보고서

이 름	한 글	이나경	소속(학부/과)	화학소재융합학부 고분자공학전공
파견 학기	2019년 1학기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Hochschule Heilbronn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여행으로 유럽에 가는 것과 그 곳에 살며 공부하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았다. 타지에 가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고 영어로 수업을 듣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원래부터 영어를 잘 하진 못했지만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은 없었다. 열심히 학교를 다니다 보니 4학년이 되었던 해외경험이 하나도 없는 본인은 갑자기 교환학생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독일은 서류를 중요시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교환학생 선발 후의 신청 기간과 독일에 도착한 후 기간 동안 작성해야할 서류가 매우 많다. 이메일을 통해 모든 정보가 공유되므로 이메일을 자주 체크하여 어떤 내용의 이메일이 도착하였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정리해두도록 하자. 또한 준비한 서류들도 실물 종이로도 모아두고 파일로 저장해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초반 1개월 정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서류와 여권을 함께 가지고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1. 서류준비

1-1. MOBILITY-ONLINE

하일브론 대학교의 경우에는 독일 도착 전 mobility-online이라는 인터넷 페이지에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 페이지 회원가입 후 Before the mobility에 해당하는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독일어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다. 번역기 돌리면 다 나온다. 내용이 매우 많으므로 헛갈렸던 것 위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 | | |
|------------|---|
| - Semester | 만약 한국기준 1학기(3월-7월)에 교환학생을 온다면 Summer Semester로 체크한다. 반대로 한국기준 2학기(9월-12월)에 해당한다면 Winter Semester로 체크한다. 약자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2019년 1학기는 SS 2019로 표기한다. |
| - Name |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헛갈린다. First name : 길동, Last Name : 홍
독일어로는 Vorname : First name, Name : Last Name. |
| - Date | 유럽은 날짜를 쓰는 방식이 반대라 일, 월, 년 순으로 표기한다. 예를 |

들어 2019년 7월 23일을 독일에서 23.07.19로 표기한다. 이 것은 서류를 작성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날짜를 쓰고 서명을 할 때 이 순서를 따라야 한다.

- I need to a visa to enter Germany Mobility-online을 작성할 때 이런 칸이 있다. No라고 체크하면 된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럽에서 무비자 여행 90일까지 가능하므로 일단 독일에 들어온 후 거주비자를 받으면 된다.
- Previous studies 빈칸으로 남겨뒀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 Campus Sontheim으로 선택했는데 이건 어떤 과에 지원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Winter Semester 2019부터 BU과는 bildungscampus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확하지 않다.)
- 기숙사 Accommodation에 Yes를 체크하여야 기숙사 신청이 되는 것.
- Introduction Programme 꼭 신청하세요.

이 모든 것을 작성한 후에는 수기 작성하는 서류들이 많다. 보통 서류는 이메일로 양식이 오며 프린트 후 날짜와 서명을 기입한 후 다시 스캔하여 업로드한다. 또한 그 사이트의 Download documents 탭에서 서류 폼을 다운받기도 한다. 날짜는 앞서 말한 대로의 순서를 따라야 하며 서명은 한글이든 영어든 상관없지만 여권, 카드 뒷편, 서류 등에 하는 모든 서명은 일치되어야 한다. 이미 다르게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맞추도록 하자. 또한 이 모든 서류는 작성하여 우편으로도 보내야한다. 금오공대 국제교류원으로 이메일 제출하면 국제교류원에서 독일 학교로 우편전송 해준다. 그래서 스캔한 파일들과 서명한 원본 파일들을 모두 모아두는 것이 좋다.

1-2. 보험사, 은행 서류

하일브른 대학교에서 보험사와 은행 서류를 이메일로 요구할 것이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AOK와 TK 회사가 있는데 보통 AOK를 선택한다. 사보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할 수는 있으나 보장 범위에 따라 비자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저렴한 보험료를 따라 굳이 사보험을 선택하는 경우 AOK나 TK의 직원에게 보장범위를 이메일로 보내 비자발급에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한다. 작성한 서류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완료된다.

은행 서류의 경우에도 이메일로 서류 폼이 온다. Kreisparkasse 은행은 한국으로 치면 농협 정도의 크고 보편적인 은행이다. Non-european의 경우에는 독일 일반 계좌뿐만 아니라 거주비자 발급을 위한 Block account를 개설해야한다. 슈페어konto(block account)를 개설하겠냐고 물어보는 칸에 체크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은 체크를 하지만 독일은 체크표시 대신 x표시를 한다.

2. 비자발급 절차

독일에 도착하면 학교에서 Introduction program이 시작된다. 사실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쉽다. 비자 발급은 크게 Introduction program, 은행방문, 시청방문 순서로 진행된다. 이 때 작성하는 모든 서류는 파일로 모두 모아두어야 한다.

2-1. Introduction program - 서류작성

독일 도착 전 이메일을 통해 이미 은행과 보험사의 서류 작성을 끝냈을 것이다. 독일 도착 후에는 Introduction program에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작성한다. 보험서류는 AOK, TK로 신청한 학생들의 경우

Introduction program 중에 보험사에서 직원이 나와 서류를 나눠 줄 것이다. 이 서류를 받아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파일에 모아두자. 이 서류는 거주비자발급과 학교 등록에 이용된다. 은행의 경우에도 Introduction program에서 함께 은행으로 가서 계좌를 개설한다. 또한 시청방문도 Introduction program에서 함께 간다. 모든 곳에서는 서류를 제출하기도하고 받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2-2. 은행방문

Introduction program에서 함께 시청방문을 하였을 때 받는 서류 중에 block account 명령서가 있다. 이 서류에 적힌 금액대로 개설한 독일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 (SS2019 기준 한 학기 4320 유로) 본인은 카카오 뱅크가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기에 카뱅을 이용하여 입금하였고 독일 계좌에 송금이 확인되면, block account 명령서와 함께 은행으로 가서 block account를 개설한다. 나중에 이 돈은 매 달 1일 생활비로 계좌에 입금된다. 또한 은행에서 block account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야한다. 이 서류는 거주비자 발급에 사용된다.

2-3. 시청방문

거주비자 발급의 최종 단계이다. 여태 작성했던 거의 모든 서류가 이 단계에서 사용된다. 보험확인서, Anmeldung(Introduction program에서 작성), 여권사진, 여권, block account 확인서, 학교 합격 확인서(zulassung)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비자발급에 필요한 수수료까지 현금으로 챙겨 시청을 방문하면 드디어 여권에 거주비자를 붙여준다! (Introduction program에서 자신이 방문했던 방으로 가면 된다.)

3. 항공권 구입

보통 skyscanner 사이트를 이용하여 비행기 최저가를 찾아 항공권을 구입한다. 최저가 비행의 경우에는 중국항공이나 영국항공등을 이용해 경유하는 것이 가장 저렴했던 기억이 있다. 또한 미리 구매할수록 가격이 저렴하다. 자신이 비행기를 많이 타 본적이 없고 경유에 자신이 없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직항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본인의 경우에는 G마켓을 이용하여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했다. 인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공항으로 직항편을 이용했으며 아시아나 항공사를 선택하였다. 한국 항공사여서 12시간 비행동안 한국영화, 예능 등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은 씬밥 기내식이 맛있다. 또한 비행편을 구입하고 나서는 그 항공사의 어플을 설치하여 온라인 체크인을 하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이 편하다. 네이버 검색하면 잘 나온다.

4. 수강신청

Mobility-online을 작성할 때 List of subjects를 작성했을 것이다. 사실 그대로 수강신청이 되지 않는다. 독일 도착 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강신청은 ILIAS라는 사이트에서 과목을 구독하는 식으로 신청하게 된다. 이 사이트는 매우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즐겨찾기를 해두어도 좋지만 구글에 Quicklinks hhn을 검색한 후 ILIAS로 들어가 로그인하면 된다. 독일인 친구가 알려준 꿀팁이다. 또한 자신의 시간표를 전체적으로 작성해보고 싶다면 Quicklinks hhn 검색 후 StarPlan으로 들어가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강의를 입력하여 전체적 시간표를 볼 수 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하일브론 대학교는 작은 캠퍼스 4개로 나뉘져 있다. 메인 캠퍼스는 Sonthiem campus와 Bildungs campus이다. 원래는 Sonthiem campus가 중심이었으나 Bildungs campus로 국제교류원이 이전하며 교

환학생들에겐 그 곳이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숙사인 Max plank는 Sontheim campus옆에 있으며 걸어갈 수 있으나 시내쪽에 위치한 bildungs campus 까지는 버스를 타야 한다. 보통 31번을 많이 타는데 캠퍼스 앞까지 직행으로 가기 때문이다. Sontheim campus 앞이나 기숙사 앞에서는 61번 버스를 타고 Rathaus에서 내려 걸어가거나 allee post ost에서 31번 버스로 갈아타야 한다.

한국에 비해 기온이 낮다. 여름에도 더운 날이 많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에 공간에는 에어컨이 없다. 기차에도 없다. 그러나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 여름에 매우 더운 날이 몇몇 있었다. 그래도 34도 정도였다. 그 외에는 여름에도 26도 정도 된다. 겨울에는 매우 춥고 날씨도 우중충하다고 들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여행을 많이 하고 싶다면 학기 초에 block course를 들어 학점을 충족하고 그 후에 여행을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수강신청과 별개로 학기 중에 시험신청기간이 있는데 그때 꼭 시험신청을 해야 시험을 칠 수 있으며 성적과 학점을 받을 수 있다.

1. English for Business Studies 1 (for incoming students), B1

학점은 적지만 기본적으로 들어놓으면 좋을만한 수업이다.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영어를 배우며 독일 문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해준다. 수업 난이도가 쉬우며 과제도 많이 없었던 것 같다.

2. Deutsch als Fremdsprache (A1.1) - German as a foreign language

독일에 왔으면 독일어 수업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수님이랑 얘기하며 독일의 문화도 많이 알 수 있고 기본적인 독일어를 알 수 있어 독일 생활에 도움이 된다.

3. BWL-Seminar

수업이 따로 없으며 영어로 에세이를 쓰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목이다. 학기가 시작된 후 이메일로 정보가 오는데 이 수업을 수강하고 싶은 학생은 교수님께 메일을 드려야한다. 교수님과 미팅 날짜를 잡아 미팅한 후 정해진 주제와 분량에 따라 에세이를 작성하고 정해진 날짜에 발표를 하면 끝이다.

4. Seminar: European Transport and Logistics Market

대표적인 Block course 중 하나이다. 일주일동안 다른 도시에 가서 생활하며 교통과 물류에 관한 여러 가지 세미나를 듣는다. 마지막 이들은 조별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나름 재미있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는 Kennedy, Max-plank 두 개가 있다. 하지만 2019년 2학기부터 Kennedy 기숙사는 없어진다. 독일의 기숙사는 한국과는 달리 기숙사 내부에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부엌이 있다. Max-plank의 경우 보통 2인실이며 들어가면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있고 방 2개가 있다. 자취방이나 셰어하우스라고 생각하면 쉽다. 독일은 무조건 인당 각자 방을 하나씩 준다. 방에는 침대, 책상, 의자, 책장이 기본적으로 있으며 유럽이므로 신발을 신고 다니게 된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맨발로 다녀도 상관은 없지만 외국인 친구들이 놀러온다면 자연스럽게 다들 신발을 신고 들어올 것이다. (물론 신발 벗으라고 하면 벗긴 한다.)

Block account에 잡혀있는 돈에서 일정 금액이 매달 자동으로 계좌에 이체된다. 그 후 내 계좌에서 기

숙사 월세와 보험료가 빠져나간다. SS2019 기준 한 달 생활비 720유로가 이체되며 Max-plank 월세 300 유로 정도, AOK 보험료 91유로 정도이다. (자동이체 하겠다는 서류도 introduction program에서 작성한다.) 나머지는 식비와 여행경비 등으로 나가게 된다. 돈이 모자라면 한국에서 독일 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만약 BU 학부로 지원하였다면 과에서 버디 프로그램이 있다. 교환학생들에게 1대1로 친구를 만들어 준다. 학기동안 자주 연락하며 같이 밥도 먹고 모르는 것도 물어볼 수 있어서 좋다.

개강을 하자마자 소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여기서 함께 서류를 작성하고 시청, 은행을 함께 방문하는 등 비자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어느 정도 함께한다. 또한 근처 대도시인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와 Stuttgart(스투트가르트)를 방문하여 투어도 진행한다. 그 곳에서 다양한 문화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동아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참여하지는 않았다. 얘기를 들어보니 축구, 발리볼 동아리가 있다고 하더라.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아마 다른 동아리도 많을 것이다. 하일브론에서 생활하다 보면 생각보다 심심하고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동아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상관없다.

과제나 공부는 보통 학교 내 멘자(Mensa)에서 많이 한다. 학생식당과 카페테리아가 있는 곳인데 다들 노트북을 가지고 앉아 공부를 하거나 조별과제를 한다. 애초에 식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들 얘기를 나누며 식사하고 공부하므로 조용한 분위기는 기대할 수 없다. 시끄러운 곳에서 집중을 못하는 사람은 집에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학교 캠퍼스 구석구석에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곳이 꽤 있으므로 학교 구경 겸 걸어 다녀 보고 자신에게 맞는 장소를 찾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독일에 오면 독일 계좌를 개설하여 그 카드로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하여 신용카드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Visa, Master Card 두 종류 모두 챙겨오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둘 중 하나를 안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카드 뒤편의 서명란에는 꼭 서명을 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영수증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도난카드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카드 뒤편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애초에 현금만 받는 곳도 많으므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으며 한국과는 달리 동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동전지갑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독일은 외식비용이 비싸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물, 반찬 등이 나오지만 독일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 사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것이 싸게 먹힌다. Kaufland, Lidl이 대표적인 마트이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일요일에 마트와 가게가 문을 닫는다. 편의점도 없다. 따라서 식재료나

물건을 토요일에 미리 사두어야 한다.

휴대폰은 독일 도착 후 심카드를 사서 독일번호로 개통한다. 본인의 경우에는 독일 도착 후 2일 동안 해외로밍을 하고 이 후에 휴대폰을 정지하도록 미리 신청해두었다. 2일 동안에는 로밍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 동안 심카드를 구매해 새로 개통하였다. 본인은 Aldi에서 구매한 심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가장 저렴하다. (그렇다고 들었다.) 집에서 가까운 Lidl에서 구매하는 것도 편리할 것 같다. 심카드는 본인이 등록해야하는데 본인인증을 해야 하므로 여권이 필요하며 영상통화로 이야기해야한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 방법이 자세히 나오므로 찾아보는 편이 좋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독일에서의 한 학기는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다. 문화와 환경의 차이가 사고방식의 차이를 만들고 다채로운 현상을 만들어 냈다. 기억에 남았던 일은, Introduction 프로그램에서 만난 후 같은 그룹으로 지낸 친구들이 거의 남미 출신 친구들이었는데, 시간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저녁약속 시간이 오후 6시라고 했을 때 한국인의 경우에는 5시 50분쯤 모든 요리를 끝내고 만나는데 내가 만난 남미 친구들은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하나둘씩 모여 저녁준비를 시작하는 식이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따지기도 하였으나 그들의 생활방식, 문화를 많이 알고 나서는 이해가 되기도 했다. 남미는 원래부터 환경이 매우 덥고 해가 길기 때문에 일찍 나오고 서두르는 문화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해가 비교적 짧고 '빨리빨리 문화'가 뿌리내려 있어 시간약속을 중요시 하게 된 것이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문화와 환경의 차이가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런 소용돌이의 가운데서 살아가며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독일에서 수학하는 동안 학교 측으로 또는 교수님께 메일을 쓸 경우가 왕왕 있을 것이다. 인터넷으로 예의 있게 메일 쓰는 방법을 검색하여 메일을 쓰도록 하자.